

## 동부 시베리아의 알타이제어 현황

김 철 홍\*

### I.

러시아의 알타이학 관계 서적에서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을 동부 시베리아와 서부 시베리아로 구분하고 있다. 드물게는 시베리아를 동부 시베리아와 중부 시베리아, 서부 시베리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가지 구분 모두 서부 시베리아를 우랄 산맥으로부터 예니세이강까지의 지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예니세이강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7백 20여만km<sup>2</sup>의 광활한 영토의 동부 시베리아를 다시 중부 시베리아와 동부 시베리아로 나누기도 한다. 필자는 전자의 구분을 기준으로 동부 시베리아를 논하고자 한다.

답사를 앞두고 준비했던 현지 사정 파악은 쉬운 편이 아니었다. 그리 개방된 사회도 아니었고 격변기의 러시아 내부 사정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베리아에 대한 여행 안내서도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힘들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시베리아에 대한 몇 가지 백과사전류 (Города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94 [러시아 도시 백과사전. 모스크바. 1994] 와 Народы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М., 1994 [러시아 민족 백과사전. 모스크바, 1994]) 등의 서적밖에 없었다. 참고로 여기서 시베리아 현지 답사 준비자들을 위해 몇 가지 인터넷의 주소를 알려 두고자 한다.

알타이; <http://www.alien.com>

알타이지역; <http://www.dch-asu.ru>

동부 시베리아; <http://www.icc.ru>

연해주; <http://www.vladivostok.com>

---

\*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언어학연구소 연구원

<http://www.vostok.com>

시베리아: 경제, 문화, 사업; <http://www.nsc.ru>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http://www.ras.ru>

<ftp://ftp.ras.ru>

<gopher://gopher.ras.ru>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http://www.isu.runnet.ru>

노보시빌스크 국립 대학교; <http://www.nsu.ru>

본고는 1995년 7월의 동부 시베리아지역 답사를 토대로 답사지에 대한 사정과 언어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알타이제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지 답사가 절실했었다. 이 답사를 다음에 이어질 답사를 위한 제일보로 여겼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별 언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했다. 알타이제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알타이제어의 연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민속학적인 조사 및 구비 문학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답사가 있기 전에 필자와 서정범 경희대 명예 교수는 당시 필자가 재직 중이던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국립 인문 대학교(РГГУ)에서 몇몇 알타이어 학자들과 알타이어계 어원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필자와 정기적으로 알타이어 어원 사전 편찬 작업에 참가하고 있던 러시아 국립 인문대학교의 스타로스친(Старостин С. А.)과 디보(Дыбо А. В.) 및 무드락(Мудрак О. А.)이 참가했다. 이중 스타로스친(Старостин С. А.)은 알타이어의 문제와 일본어의 기원. 모스크바 1991」(Алтайская проблема 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М., 1991)을 썼는데 얼마 전 한국에 다른 제목으로 된 번역서가 나온 바가 있다.

답사 일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당초 답사 참가 인원을 3-4명으로 예상했으나 계획과 달리 서정범 경희대 명예 교수와 필자 2명만 답사에 참가했다. 모스크바를 떠난 이후의 답사지와 여행 경로 및 교통편은 다음과 같다.

답사지: 이르쿠츠크, 울란 우테, 구신노아조르스크, 야쿠츠크, 하바로프스크,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니즈니에 할비, 바즈니센스코에  
여행 경로 및 교통편

서울-모스크바 (대한항공): 7월 2일

모스크바-이르쿠츠크 (아에로플로트): 7월 5-6일

이르쿠츠크-울란 우데 (부리아트 항공): 7월 7일

울란 우데-구신노아조르스크-울란 우데 (승용차): 7월 9일

울란 우데-이르쿠츠크 (부리아트 항공): 7월 10일

이르쿠츠크-야쿠츠크 (사하 항공): 7월 10일

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 (사하 항공): 7월 16일

하바로프스크-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열차편): 7월 18-19일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니즈니에 할비-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선  
편): 7월 21일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바즈니센스코에-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승  
용차): 7월 22일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하바로프스크 (열차편): 7월 22-23일

하바로프스크-서울 (아에로플로트): 7월 23일

## II -1.

답사를 행선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르쿠츠크와 바이칼호수

모스크바의 국내선 비행장 쇠르메치에보 제1공항을 밤 10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다음날 현지 시간으로 8시 40분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시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교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주었다. 그 교포의 이름은 황류다이며 50대의 여성으로, 타슈켄트에 사는 데 여름 휴가 때면 그녀의 오빠가 있는 이르쿠츠크에 와 있었다. 오빠의 이름은 황계나디로 예비역 장교였다.

이르쿠츠크에 가기 며칠 전에 그 곳에 살고 있는 교포에게 우리가 갈 것을

미리 알렸다. 그들은 필자의 박사 과정 후배와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후배의 도움으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여 교포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는 교포와 함께 울란 우데로 가는 왕복 항공 표를 사러갔다. 매표소에서는 우리의 여권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행기표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도착지의 관할 외국인 등록소를 다녀오고 나서야 비행기표를 살 수 있었다.

이르쿠츠크에는 1782년에 문을 연 향토 박물관이 있었다. 그 곳에는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전시품들이 30만점 이상 있었다. 부리아트족의 종교인 라마교 이외에 다른 시베리아 민족들의 무속 신앙과 이들 민족들의 과거 생활상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이 지역에 300년 전부터 정착하게 된 러시아인들의 초기 생활상도 전시하고 있었다.

이르쿠츠크 시내에 있는 재래식 시장을 들렀다. 시장에서 요구르트 등의 우유 제품을 파는 부리아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시장 한편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초코파이와 어머니 도시락, 한국산 아이스크림 등을 팔고 있었다. 이르쿠츠크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부리아트인들의 자치 지역이 있으며 그 곳에서 이들 민족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교포는 바이칼 호수로 가는 길목에 민속촌이 있다며 그 곳으로 안내했다. 민속촌은 광활한 지역에 부리아트 민족 및 다른 시베리아 민족들의 주거 형태를 복원해 놓았고 주거지 안에 생활 양식을 볼 수 있게 개방을 해 놓았다.



<사진 1>

바이칼 호수 주위는 한여름인데도 서늘했다. 점퍼를 꺼내어 입었다. 호수의 물은 매우 맑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6월까지도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바이칼 호수 옆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는 천 조각이 많이 붙어 있었다. <사진 1> 교포의 말로는 무엇을 기원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이라 했다.

밤이 다 되어서야 바이칼 호수를 출발해서 이르쿠츠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승용차 편으로 이르쿠츠크와 바이칼 호수를 왕복하였는데 승용차는 개인차로 영업하는 차였다. 이는 러시아에서 흔한 경우로 정해진 요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흥정에 의해 정해진다. 교포와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심한 옷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5~6시간을 빌리는데 50달러가 조금 넘었다. 그 날 밤은 그 교포의 집에서 묵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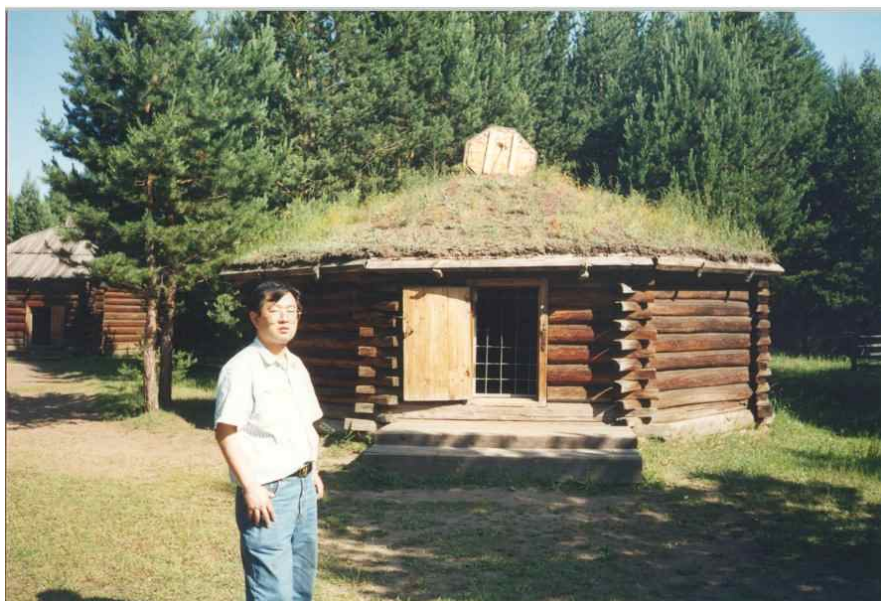
## 2) 울란 우데와 구신노아조르스크

부리아트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울란 우데로 가야 했다. 울란 우데는 부리아트 공화국의 수도로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다.

이르쿠츠크에서 오후 4시 5분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좌석은 탑승권에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선착순으로 앉게 되어 있었다. 울란 우데가 바이칼 호수 건너편에 있으므로 비행기는 호수를 가로질러 낮게 날았다. 질푸른 빛의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2000미터가 넘는다. 비행기는 50분만에 울란 우데에 닿았다. 우리는 공항에서 바이칼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데 숙박료는 2인 1실에 50달러 정도 되었다.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시내 관광에 들어갔다. 서점에서 부리아트어 사전(국어사전)과 부리아트어와 러시아어의 대역으로 쓰여진 부리아트 민족의 영웅 서사시 등의 서적을 구입했다. 부리아트어와 부리아트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이 생각보다 적었다.

울란 우데에 도착한 다음날(7월 8일) 아침에 우리는 서둘러 울란 우데 교외에 위치한 ‘바이칼 지역 민속박물관’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культуры и быта народов Забай калья)을 찾아 갔다. 광범위한 면적의 그 곳에서는 부리아트족, 어윅키족 등의 민족들의 과거 생활상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주거와 생활 양식

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부리아트인의 전통적인 가옥은 이전에 보아 온 몽골인들의 가옥과는 달랐다. 부리아트인의 가옥 모양은 몽골 가옥과 같았으나 통나무로 지어졌고 지붕 위에 흙을 덮은 것이 특이했다. 지붕 위에는 작은 환풍구가 있었고 그 주위에 풀이 자라고 있었다. <사진 2> 그 곳은 반자로바(Банзарова) 광장에서 35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 오후에는 자연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박물관은 바이칼 호수와 그 지역의 동식물에 대한 전시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 2>

그 다음날(7월 9일)은 울란 우테에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신노아조르스크로 향했다. 그 곳에 라마 사원이 있으며 구신노오제라(기러기 호수)가 있었다. ‘기러기 호수’는 기러기가 이동 중에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그 지역의 부리아트 노인들을 통해서 기러기와 관련된 부리아트인의 의식을 알게 되었다. 기러기는 부리아트인에게 신성한 새로 잡아먹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민속 중에 신혼부부에게 한 쌍의 목각 기러기를 주는 것을 보아서도 몽골인들과 한국인들의 의식에는 기러기가 길조인 것 같았다. 반면 야쿠트인들

은 기러기를 사냥한다고 했다.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한 사람은 울란 우데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전직 교수인 돈도이오프 (Дондойов Н. Н.)씨였다. 부리아트인인 그로부터 부리아트어에 대해 조사도 했다. 그는 60대 후반의 나이인데도 부리아트어의 많은 기초 어휘를 모르고 있었다. 참고로 그의 집 전화 번호는 6-79-43이다. 부리아트인들의 언어 조사는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다. 아마도 비슷한 외모 때문인 것 같았다. 몇몇은 내가 몽골에서 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부리아트어는 지역마다 방언 차가 났다. 저녁에 구신노아조르스크에서 울란 우데로 돌아와 숙소로 들어갔다.

다음날(7월 10일)은 울란 우데를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하여 10시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이르쿠츠크를 출발하여 야쿠츠크에 도착했다.

### 3) 야쿠츠크

야쿠츠크는 사하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의 수도이다. 야쿠트 공화국을 사하 공화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사하 공화국의 사하(саха)란 명칭은 야쿠트어에서 나왔다. 현재 사하 공화국 내에는 여러 민족이 서로 섞여 있는데 유카기르족이 선주민이며, 다음에 통구스계의 어원족, 어윅키족이 이 지역에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야쿠트인들이 몽골의 침입 때문에 피신해 왔는데, 지금은 야쿠트인들이 주로 살고 있다.

이르쿠츠크에서 오후 4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현지 시간 오후 8시 30분에 도착했다. 야쿠츠크까지는 열차에 의한 교통편이 없다. 이 곳에 도착했을 때 야쿠트 국립 대학교의 야쿠트어 학자인 코르키나 (Коркина Е. И.) 교수가 공항에 나와주었다. 코르키나 교수의 도움으로 다음날 우리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언어, 문학 및 역사 연구소 (Институт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а и истории)의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부소장 니루노프(Нелунов А. Г.) 박사가 며칠간 연구소의 차로 직접 안내를 해주었다. 그의 도움으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부 시베리아 소수 민

족 문제 연구소 (Россий 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를 방문하여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러시아의 8월은 휴가철로 거의 모든 곳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공연 등도 이 기간에 볼 수 없고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와 학자들도 멀리 휴가를 떠난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자들에게 방문 계획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고맙게도 그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답사 기간동안 학자들을 만날 때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다. 넥타이는 예의로 잘 받아들여졌다. 학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가죽 장갑을 선사했다. 가죽 장갑에 대해서 만족해했다.

답사 당시 그 지역은 위도가 60도 이상으로 백야가 진행 중이었다. 해는 저녁에 졌으나 새벽 2시 반이 되어도 대낮같이 환했다. 호텔 방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너무 밝아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날씨는 답사 기간 내내 맑았으나 기온의 변화가 컸다. 점퍼차림으로 지냈다.



<사진 3>



민속박물관을 통해 야쿠트인들과 어윙키족, 어원족의 과거 생활상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어윙키인들의 민속품에서 우리와 같은 솟대 등을 볼 수 있었다.

### <사진 3>

야쿠트 지역의 모기떼는 성가신 존재였다. 야쿠트 시내에는 모기떼가 심하지 않으나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다. 현지에서 파는 러시아제 바르는 모기약이 효과가 매우 컸다. 약효가 큰 만큼 피부가 얼얼하게 따가웠다. 툰드라 지역에서는 모기 때문에 긴소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물론 머리에 방충망을 써야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야쿠트인들은 다른 시베리아의 민족보다 민족 의식이 상당히 강했으며 아시아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막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독립 국가를 꿈꾸고 있었다.

야쿠츠크에서는 5일간 시 외곽의 가르냐 호텔(Гостиница Горняк)에서 묵었다. 이 호텔은 시내에서 버스로 30-40분 떨어진 곳이었는데 당시 야쿠츠크에 총리가 와 있어 시내쪽에서는 호텔을 잡기가 어려웠다. 참고로 이 도시는 버스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심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버스가 잘 운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 곳에서 야쿠트 국립대학교 야쿠트어과 교수 안토노프 (Антонов Н. К.) 교수를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집과 다차(дача)라고 불리는 별장으로 초대해 주었다. 별장은 지평선이 보이는 황무지 위에 지어져 있는데 안토노프 교수가 여름에 쉬면서 저술을 하기 위해 들르는 곳이다. 그는 우리가 여름에 오게 되면 그곳에서 한 달이고 묵게 해 주겠다고 했다. 마당에는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기후 때문인지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오이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안토노프 교수는 우리를 위해 그의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레나강을 건넜다. 배가 빠르기는 했으나 폭이 매우 큰 레나강을 건너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안토노프 교수의 사모님은 점심을 준비하여 오셨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야쿠트인이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과 이름이 러시아식이며, 종교도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었고 의식주 모두가 러시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모국어를 쓰고 있었으며 전통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 4) 하바로프스크

야쿠츠크에서 하바로프스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윤이 좋게 교포를 만났다. 한국을 사업차 여러 번 다녀 간 그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 산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는 나나이인들을 흔히 볼 수가 있으며 자신의 아파트 옆집에도 나나이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조금 떨어진 아무르스크를 다녀 와서 그의 집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하바로프스크에서 2-3일만 기다려 준다면 그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로 초대한다고 하였다. 물론 우리는 찬성이었다.

우리는 야쿠츠크에서 오후 2시 25분에 출발하여 2시간 후, 즉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25분에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우리는 곧장 아무르(Амур)호텔로 가서 여장을 풀었다. 그 호텔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 주었다. 숙박료는 2인 1실 기준으로 1일 50달러 정도였다.

하바로프스크는 시베리아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한국으로 오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 당시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와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이 주 2회씩 취항을 하고 있었다.

그 도시는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의 여름 기온은 한국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자주 비가 왔고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반면 겨울은 무척 춥다고 한다. 하바로프스크 지역의 하루살이 벌레도 우리를 성가시게 굴었다.

다음날(7월 17일) 아침 우리는 호텔의 식사를 마치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낮에는 중앙 시장(центральный рынок)을 찾아 갔다. 맑은 날씨에 기온은 27도로 습도가 많아 후덥지근했다. 그 시장에는 많은 교포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김치 등을 팔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소수 민족은 드물었다. 하바로프스크 및 근교 지역에서는 통구스계 민족들의 거주지를 찾기 어려웠다. 물론 통구스계 주민들도 드물었다.

그날이 월요일이라 박물관이 휴관을 하였으므로 관람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녁까지 시내 관광에 들어갔다.

그 다음날(7월 18일)은 하바로프스크의 부두에서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을 따라 운항되는 여객선을 타고 인근 지역까지 가 보았다. 중국의 국경이 가깝게

보였다.

오후에는 하바로프스크 중심부에 있는 향토 박물관(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을 찾았다. 그 곳을 통해서 통구스인들의 과거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향



<사진 4>

토 박물관은 아무르강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의 ‘소비에트 이전 분과’는 나나이, 울차, 오로치, 우데헤, 니브흐족의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생활용품으로는 자작나무 등의 나무로 만든 목기와 숟가락이 있었다. 숟가락은 다양한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다. 이들 민족들의 전통 의상은 생선의 껍질과 모피, 천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책을 통해서 알았던 물고기 껍질의 옷과 신발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뜻깊었다. <사진 4> 향토박물관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샤먼의 의상과 도구였다. 샤먼의 도구 중에는 시베리아와 극지방, 아메리카 인디언에게까지 널리 쓰였던 평복이 있었다. 또한 사람 모양과 호랑이 등의

목각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은 무속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다.

그 날 저녁 아무르스크에서 돌아 온 교포를 만나 콥소몰스크로 향했다.

##### 5) 콥소몰스크 나 아무레, 니즈니에 할비, 바즈니센스코에

이 지역들은 주로 나나이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다른 통구스족들도 살고 있다.

콥소몰스크 나 아무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약 356km가 떨어져 있고, 인구는 30만명이 조금 넘으며,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계획도시이다. 하바로프스크에서 콥소몰스크 나 아무레까지는 기차의 침대칸을 타고 갔다. 야간 열차이기 때문

에 전칸이 침대차였다. 2인실도 있었으나 교포와 같이 가기 때문에 4인실을 타게 되었다.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기차가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날(7월 19일) 아침에 그 교포의 집에 여장을 풀고 거리로 나섰다.

이 도시의 거리 곳곳에서 나나이족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민속 박물관이 있어 소수 민족의 과거 생활상을 볼 수 있었다. 민속 박물관에서는 연어의 껍질로 만든 장신구와 옷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옷에는 사람과 뱀, 개구리, 닭, 사슴, 도마뱀, 호랑이 등이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토기류로는 빗살 무늬 토기와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붉은 색 토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무속적인 의미를 지닌 호랑이, 사람 등의 목각 공예품이 있었다. 저녁에 시내 관광을 마치고 교포 집으로 돌아와 숙박을 했다. 그 집은 그 교포와 그의 장모와 부인, 아들 넷이 비교적 여유 있게 살고 있었다.

다음날(7월 20일)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의 방송국 직원이 나나이족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나나이족의 암각화에 대한 것도 있었다. 아무르 강가의 암각화는 사람의 얼굴과 기러기, 멧돼지 등이 그려져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파괴되어 있었다.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서는 지역방송에서 나나이어 시간이 따로 있었다.

그 다음날(7월 21일)은 아침 일찍 나나이인들의 부락을 찾아 나섰다. 니즈니에 할비에 나나이족 부락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서 여객선편으로 향했다. 배는 ‘로게트’로 불리는 쾌속선이었다. 배 안에서 운이 좋게 나나이 초등학교의 교장을 만나게 되었다. 교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나이 여성이었다. 여름 방학 기간이었으나 나나이 초등학교에서는 나나이어와 민족 전통에 대한 보전과 전수에 힘쓰고 있었다. 학생들은 민속 의상을 재현했고 무속 신앙과 연관된 목각 인형과 호랑이의 모형을 만들어 학교의 전시실에 비치하고 있었다.

그곳 초등학교의 교사이자 작가인 나나이인 게이케르(Гейкер В.)씨로부터 나나이어의 실제 발음과 나나이인들의 구전 문학에 대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쓴 러시아어와 나나이어로 대역된 나나이인들의 설화집을 선물로 주었다. 나나이

어 서적을 러시아어와 비교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현지 답사를 온 외국인인 2년 전 중국의 학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몰라 나나이어로 의사 소통을 했었다고 했다. 점심 식사는 학교 식당에서 교장 선생님과 여러 교사들과 함께 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전통 무용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음날 열릴 소수 민족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녁에 우리는 그곳을 출발하여 콤포몰스크 나 아무레에 도착하여 교포집에서 숙박을 하였다.

다음날 (7월 22일) 바즈니센스코예에서는 연해주 소수 민족들의 민속 예술제가 열려 지역 방송국의 초대로 참가하게 되었다. 콤포몰스크 나 아무레에서 그곳까지의 교통편이 좋지 않아 승용차편으로 출발했다.

오전 9시 15분에 시작된 민속 예술제에는 주요 참가원인 나나이인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수의 남부 퉁구스계 종족들이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모였



<사진 5>

다. 흐린 날씨 속에서 그 지역 지도자가 개회식을 선언을 하였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행사는 곧 실내로 옮겨져 계속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전통 무용과 그들 언어로 부르는 민요, 전통 놀이 등을 볼 수 있었다.<사진 5> 나나이 텔레비전 방송 기자들과 인터뷰도 가졌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나나이인들의 언어, 문화가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통 무속 신앙등과 관련하여 대답을 해주었고 공통 어원을 갖는 한국어와 나나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다. 그 기자들은 발해 때는 우리 민족과 나나이인들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된 적이 있고, 조선 초기에 많은 수의 나나이인들이 조선에 귀화를 했다고 하며 서로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했다.

저녁 무렵에 바즈니센스코예를 출발해서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 도착했다. 시내를 둘러 그 동안 우리를 잘 대해 준 교포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그 집에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으므로 학용품과 책을 샀다. 교포 집에서 저녁을 마치고 미리 사 둔 기차표로 밤 10시에 그 곳을 출발했다. 나흘간 같이 지냈던 교포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음날(7월 23일) 아침 7시가 조금 지나서 하바로프스크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곧바로 공항으로 가서 서울행 낮 12시 비행기를 탔다.

## II-2.

이번 답사에서 조사되었던 알타이어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부리아트어: 부리아트어는 몽골어계의 하나로 러시아 내에는 35만여명이 사용한다. 부리아트어는 4개의 방언군으로 나뉘는데 호린(Хорин) 방언을 표준어로 하고 있다.

부리아트인은 300여 년간 러시아인들과 사는 동안 자신들의 모국어를 많이 잊고 있었다. 현지 답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많은 부리아트인이 서로 간에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족간에도 그러했다. 젊은 층에게 그들의 문화와 관련된 기초적인 단어들을 물어 보고, 몇몇 20대에게 몽골족들의 유목 생활 도구인 우르가(ypra)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모르고 있었다. 중년 이상의 부리아트인들을 대부분 간단한 기초 문장과 기초 단어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부리아트어에 대한 적지 않은 출판물들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신간 부리아트어의 사전과 어학 교재를 서점에  
서 구했다. 그 중 부리아트어 사전은 소드노모프(Содномов А. Н.)의 감수로 편  
찬된 쓰여진 「부리아트 소사전. 울란 우데, 1992」(Кратки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бурятского языка. Улаан-удэ, 1992г.)이 있는데 부리아트인을 위한 교재로  
쓰이며 부다에프(Будаев Ц. Б.) 등이 쓴 「러시아어-부리아트어 자연 용어 사전.  
울란 우데, 1992」(Русско-бурятски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по природоведению /  
Бай гаалиин пэнжэлэлэй тай лбарита ород-буряад словарь. Улаан-удэ, 1992г.)  
또한 그러하다. 부리아트어 회화집은 부다에프(Будаев Ц. Б.)의 「러시아어-부  
리아트어 회화집. 울란 우데, 1990」(Русско-Бурятский разговорник / Ород-  
буряад хӨӨрэлдӨӨн. Улаан-удэ, 1990г.)이 있는데 이 책에는 회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부리아트어 소사전이 수록되어 있어서 용어 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문법서는 부다에프(Будаев Ц. Б.)가 쓴 「혼자 배우는 부리아트어. 울란 우  
데, 1993」(Самоучитель бурятского языка. Улаан-Удэ, 1993г.)가 있다. 이  
책은 러시아어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부리아트어의 간단한 문법과 회화, 용어  
사전이 수록되어 있다. 부리아트어 방언학에 대한 책으로는 부다에프(Будаев  
Ц. Б.)의 「부리아트어의 방언(공시적 연구 성과)」(Бурятские диалекты (опыт  
диахрон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восибирск, 1992г.)이 있는데 이 책은 부  
록으로 부리아트어 방언 사전을 가지고 있다.

알타이제어들에 대한 자료 및 책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지 답사는 필요할  
것이다.

2) 야쿠트어: 야쿠트어는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튀  
르크어계 언어이다. 야쿠트어는 사하 공화국을 중심으로 아무르 지역과 마가단  
지역, 사할린 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야쿠트어  
는 30만 명이 넘는 야쿠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이 이 언어를 소수  
민족의 언어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야쿠트어는 야쿠트 국립 대학교에서 정식 학과로 개설되어 있었다. 야쿠트인  
들은 서로 야쿠트어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러시아어도 모국어 못지 않  
게 잘 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어와 야쿠트어의 사용에 아무런 어려움

이 없다고 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러시아어 전용 학교와 야쿠트어 전용 학교를 그들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언어, 문학 및 역사 연구소 (Институт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а и истории РАН)의 부소장 닐루노프(Нелунов А. Г.) 박사의 주선으로 그 곳의 여러 야쿠트어 관계 학자들과 야쿠트어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는 이 연구소의 안토노프 (Антонов Н. К.)와 닐루노프 (Нелунов А. Г.), 파포프 (Попов Г. В.), 코르키나 (Коркина Е. И.), 슬랩초프 (Слепцов П. Л.) 등이 참가했다.<사진 6>



<사진 6>

우리가 만난 야쿠트어 학자 중 파포프 (Попов Г. В.)는 [기원을 밝히기 어려운 야쿠트 어휘 (비교역사적 연구)] [ Слова «неизвест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якутского языка»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Якутск 1986 г.]라는 저서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의 결점으로 중국어에서 차용된 야쿠트 어휘가 이 책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출판된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이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다음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 부분이 보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들 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야쿠트어 관계 신간 서적을 구할 수 있었다. 야쿠트어 사전으로는 아파나시예프(Афанасьев П. С.)와 슬렙초프(Слепцов П. А.), 파포프(Попов Г. В.) 등이 쓴 「야쿠트어 소사전. 야쿠츠크, 1994」(Сахатыллын быһарылыах кылгас тылдьыта / Кратки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якутского языка. Якутск, 1994г.)과 바론킨(Воронкин М. С.) 등이 편찬한 방언 사전 「야쿠트어 방언 사전 (보충판). 노보시빌스크, 1995」 {Диалект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языка сах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том). Новосибирск, 1995г.}이 있는데 이 사전들은 야쿠트어 사용자를 위해 야쿠트어로 되어 있지만 알타이어 연구에 유익한 자료이다. 또한 바실리에프(Васильева Ю. И.)의 감수 하에 나온 야쿠트어 소사전 「러시아어-야쿠트어, 야쿠트어-러시아어 소사전. 야쿠츠크, 1994」(Краткий русско-якутский, якут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Якутск, 1994г.)을 얻었다. 야쿠트어 회화집으로는 페트로프(Петров Т. И.)의 「야쿠트어-러시아어 회화집 (서비스 부문). 야쿠츠크, 1994」 {Якутско-русский разговорник (сфера обслуживания). Якутск, 1994г.}를 구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야쿠트어 교재와 자료를 선사받았다.

3) 어윙키어: 어윙키어는 이전에 통구스어로 불렸다. 약 3만에 가까운 어윙키인들 중에서 겨우 11% 정도가 모국어로서 어윙키어를 쓰고 있다. 이들은 중년층과 노년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15년 후에는 이들과 함께 어윙키어의 운명도 끝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몇몇 곳에서 초중등학교 10년 동안 모국어로서의 어윙키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윙키어가 사어화될 염려가 없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또한 야쿠트 국립 대학교에서는 4년제 정규 과정에서 어원어, 어윙키어, 유카기르어 전공 과정이 있는데 이 학과들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윙키어는 어원어, 유카기르어와 함께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부 시베리아 소수 민족 문제 연구소(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91년 야쿠츠크시에 설립되었는데 시베리아 소수 민족 문화의 복원과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었다. 소장은 로벡 (Роббек В. А.)박사가 맡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 경제 문제분과와 어원어문학분과, 어윙키어문학분과, 유카기르어문학분과, 역사 및 문화와 민속학분과 등이 있다. 대표적인 어윙키어 학자로는 어윙키인인 안드레예바 (Андреева Т. Е.) 박사가 있었는데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었다. 안드레예바 박사는 어윙키어 실험 음성학의 전문가이며 야쿠트 국립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다. 어윙키어문학분과는 2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데 피레예바 (Мыреева А. Н.) 박사가 어윙키어를 맡고 있으며, 바르라모바 (Варламов Г. И.) 박사가 어윙키 설화와 문학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분과는 어윙키 대사전과 어윙키 설화집의 발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고로 유카기르어문학분과는 쿠릴로프 (Курилов Г. Н.) 박사가 맡고 있다.

이 연구소 측은 한국과의 인적 학술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어윙키와 어원 학자들은 러시아어 및 야쿠트어 어윙키, 어원어를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알타이학자들과의 교류에서 야쿠트 학자들보다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4) 어원어: 어원어는 이전에 라무트어로 불렸다. 어원어는 어윙키어와 같이 통구스-만주어계의 하나이며 오호츠크해와 마가단주 및 야쿠트 공화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 영토에 약 1만 7천명의 어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원어 학자들은 어원어가 어윙키어보다 고형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원어학자는 어원인인 로벡 (Роббек В. А.) 박사로 그는 야쿠트 국립 대학교에서 어문학부의 부학부장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시베리아부 시베리아 소수 민족 문제 연구소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의 소장을 맡고 있었다. 이 연구소의 여러 분과의 하나인 어원어문학분과는 2개의 부로 나뉘는데 로벡 (Роббек В. А.)이 어원어 문법과 어휘를 연구하고 있으며, 두트킨 (Дуткин Х. И.)이 어원어 방언학과 설화, 문학을 맡고 있다. 이 분과는 3부로 구성되는 어원어 문법서와 러시아어-어원어 사전, 어원어-러시아어 사전 및 어원어 방언 사전 그리고 어원어 교과서 등을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벡 (Роббек В. А.)은 어원어 문법서 발간을 위한 팀을 주관하고 있으며 어원어 문법, 방언학, 설화 등에 대해 100편 이상의 저술을 발표했다. 그의 저서 「베레조프키의 어원어. 레닌그라드, 1989」 (Язык эвенов Березовки. Л., 1989)는 그의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이 연구소의 어원 어문학분과의 부부장은 두트킨 (Дуткин Х. И.)으로 그는 로벡 박사처럼 평소 저술을 러시아어와 어원어 및 야쿠트어로 하고 있었다. 두트킨 (Дуткин Х. И.)은 어원어의 전문가로 어원어의 방언학과 어휘론, 사전편찬학에 뛰어났다. 그는 또한 어원족의 설화와 사슴 사육과 관련된 용어 등의 어원족 전통 문화의 용어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어원어 학습을 위한 간략한 회화-사전, 야쿠츠크, 1992」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разговорник для изучающих эвенский язык, Якутск, 1992)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간단한 회화와 단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쿠트어-러시아어-어원어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야쿠트지역의 어원어-알라이홉스크 방언. 상트-페테르부르크, 1995」 (Аллаиховский говор эвенов Якут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5)이 그의 저서인데, 이 책은 수 년 간에 걸친 학술 답사의 결과이며 부록으로 어원어-러시아어 사전이 있다.

로벡과 두트킨 그리고 부리킨 (Бурькин А. А.)은 「어원어-러시아어, 러시아어-어원어 사전. 레닌그라드, 1988」 (Словарь эвенско-русский и русско-эвенский. Л., 1988)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어원어 학자로는 레베제프 (Лебедев В. Д.)와 말추코프 (Мальчуков А. Л.)과 노비코바 (Новикова К. А.), 페트로프 (Петров А. А.), 리쇠스 (Ришес Л. Д.) 등을 들 수 있다.

5) 나나이어: 나나이어는 통구스-만주어계에서 남부 계열에 속한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나나이어도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의 일환으로 나나이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나이어가 지역의 TV방송을 통해 자체 나나이어 방송 시간이 있을 정도이며 나나이 민족 학교가 있어 나나이어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그들 사이에 나나이어가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었다. 러시아의 다른 언어들과 같이 나나이인들 중에 나나이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층은 거의 없다.

나나이어는 나이힌(Най хин)방언을 표준어로 하고 있다. 나이힌은 하바로프스크와 콤포몰스크 나 아무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II-3.

답사할 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거주 등록은 러시아 영토에 입국한 후 72시간 내에 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 등록은 외국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은 비교적 드물며 외국인 거주 등록소를 찾아가야 한다. 외국인 등록은 보통 월, 화, 목, 금에 2-4시간씩 이루어지며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만일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그 예의 하나로 공항에서 다른 행선지로의 이동이 저지 당하기도 한다. 하바로프스크의 외국인 거주 등록소는 우수리스크 불바르(Уссурийский бульвар) 8번지이다. 이 곳에서는 다음 행선지를 비자에 추가할 수 있다. 러시아 지역에서의 이동은 비자에 나온 행선지에 꼭 따라야 한다. 만일 비자에 적힌 행선지 이외의 지역을 가고자 할 경우는 외국인 거주 등록소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옛 소련 시절에 일반 소련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일부 연해주 지역은 외국인에게 가끔 통행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자 상으로 통행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외국인에게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만 호텔에 투숙할 수 있다. 민박의 경우도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여름의 시베리아는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가 심하다. 40도의 더위와 10도 안팎의 낮은 기온을 보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에는 위도가 높은 시베리아의 경우 백야가 진행된다. 시차 적응과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안대의 착용도 요구된다. 겨울의 시베리아는 몹시 추운데 야쿠츠크는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며 24시간 밤만 계속된다. 또한 러시아영토를 여행할 때 시차 적응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텔에 묵을 경우 러시아의 호텔 식사는 비교적 우리의 입맛에 맞다. 그리고

교포의 집에서 민박을 할 경우라면 음식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르쿠츠크나 하바로프스크 등에는 사발면 등의 한국 라면이 많이 들어와 있다. 커피 포트만 있다면 흑빵을 사발면에 찍어 먹으면서 간단히 요기를 할 수도 있다. 미숫가루를 가져가 대용식으로 쓸 수도 있다. 광천수를 사게 될 때는 꼭 가스가 있는 것과 가스가 없는 것을 가려야 한다. 가스가 들어 있는 광천수는 건강에는 좋다고 하나 쓰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어만 안다면 소수 민족의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의 영토를 여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오지 시베리아의 노년층에서 드물게 러시아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 연방의 거의 모든 사람이 러시아어에 능하다. 영어는 젊은 층에서 지금 선호하는 외국어이지만 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러시아 내에서 항공으로 이동할 때에는 위탁 화물과 수화물을 합쳐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지에서 구한 자료와 책들은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발송했는데 2달에 걸쳐 모두 도착했다. 항공편과 열차편의 요금은 외국인의 경우는 얼마간 할증을 하며 박물관 입장시도 2-3배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야쿠트 시내의 버스는 현지인과 같이 무료이다.

### Ⅲ.

현지 답사에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국립 인문대학교의 교수들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 및 언어학 연구소의 학자들의 도움이 컸다. 그들은 우리가 답사지로 간다고 연구소와 대학교에 미리 연락을 해주어 답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현지 답사가 연구소와 대학교에서 공식적인 방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모스크바의 유학생들의 도움으로 현지 교포들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주었고 숙소 문제 및 외국인 등록 등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